

광주·전남 후보 10명 중 5명 정치인

6·1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자료

6·13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광주와 전남지역 후보자들의 직업은 2명 중 1명이 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6·1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6명을 제외한 광주의 경우 224명, 전남 736명 등 총 960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 중 469명(48.8%)이 직업을 정치·정당인으로 표기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시정에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3명이 직업을 정치인으로 표기했으며 1명은 교수이다. 동·서·남·북·광산구 5곳의 기초 단체장은 총 14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직업이 모두 정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59명(비례포함)이 후보 등록한 광주시의원은 38명이 정치인이었다. 다른 후보들의 직업은 지역업 7명, 교수 2명, 의사, 회사원, 교수, 조리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직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기초의원의 경우 147명 중 77명이 정치인이었으며 지역업 34명, 회사원 10명 순이다. 직업을 무직으로 표기한 후보 등 나머지는 교수, 농업, 사회운동가, 간호사, 연구원 등이 후보 등록했다.

전남의 경우 도지사에게 5명이 도전장을 던졌으며 이 중 정치인이 3명, 기업인·교수 각 1명이다. 22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자리에는 모두 73명이 도전장을 던졌

교육감 후보 6명 제외 총 960명 출사표 469명 직업 '정치·정당인'으로 표기

으며 57명이 직업을 정치·정당인으로 표기했다.

직업을 농·어·축산업이라고 표기한 후보도 5명이 있었으며 무직 5명, 교수 4명, 지역업 3명, 변호사 2명 순이다. 직업을 발명가와 공무원이라고 적시한 후보도 각각 1명 있었다.

총 131명이 등록한 도의원 후보 중 정치인은 70명이었으며 지역업 28명, 농업 18명, 회사원 6명, 무직 4명 순이다. 나머지는 사회복지사, 한의사, 약사, 연구원, 교수 등이다.

기초의원들은 총 527명이 등록했

으며 이 중 정치인은 207명이다. 지역업·기업경영이라고 표기한 후보가 14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농·어·축산업 80명, 회사원 19명, 무직 14명 순이다.

이 밖에도 복지관장, 간호사, 방과후 교사, 박물관장, 세무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후보등록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광주 서구갑과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지역은 각각 2명씩 총 4명이 도전장을 던졌으며 정당인 2명, 사회운동가·교수 각 1명이다.

뉴스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입술 마른 金, 文 만나 "최선의 노력" 약속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두 손을 꼭 쥐고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애써 웃음을 보이기도 했으나 '책입'을 언급하는 그의 표정은 비장함마저 엿보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다음날인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 위원장이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두 손을 꼭 쥐고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애써 웃음을 보이기도 했으나 '책입'을 언급하는 그의 표정은 비장함마저 엿보였다.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자신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 '중요한 문제' '기대에 부응'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의지와 부담을 함께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 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애써 웃음을 보이기도 했으나 '책입'을 언급하는 그의 표정은 비장함마저 엿보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다음날인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 위원장이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두 손을 꼭 쥐고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애써 웃음을 보이기도 했으나 '책입'을 언급하는 그의 표정은 비장함마저 엿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상회담에서 농담을 섞어가며 문 대통령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과 달리 이날 회담에서는 표정의 변화가 많지 않았다. 특히 2시간가량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끝날 때에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마무리 발언을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에 침을 바르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과를 만들겠다"고 문 대통령 앞에 다짐했다. 또한 남북 관계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회담 다음날 "김정은 동지와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민족한 합의를 봤다"며 "최고령도자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하고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며 작별인사를 나누었다"고 보도했다.

관련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두 번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을 세 번이나 끌어안으며 유대감을 보였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민적립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 세몰이 본격화

민주당 서삼석·평화당 이윤석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와 민주평화당 이윤석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민주당 서 후보는 26일 오후 무안군 삼합을 선거사무소에서 전·현직 지방의원과 지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해철 국회의원과 신정훈 전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전동평 영암군수 후

보, 김산 무안군수 후보, 전경배 신안군수 후보,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등이 참석했다.

또 추미애 당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이춘석 사무총장 등은 영상을 보내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추 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서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이례적으로 공천장을 직접 전달하는 등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평화당 이윤석 후보도 전남 무안읍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세를 과시했다.

개소식에는 권교갑·박상수·이훈평·정대철 등 동교동계 평화당 고문단과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황주홍 정책위의장, 박지원 의원 등 중임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또 박소영 영암군수 후보와 김호산 무안군수 후보, 정연선 신안군수 후보 등 단체장 후보와 광역·기초·비례대표 후보 등이 대거 참석했다.

권교갑 고문은 "이윤석 후보는 본인의 보좌관 출신으로 변함없이 자신을 곁에서 지켜준 믿음직한 일꾼이자 국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 확보를 했던 적이 있는 능력있고 부지런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지원 "2차 남북회담 환영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뤄질 것"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사실이 깜짝 발표된 데 대해 "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한 뒤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도 비난하지 말고 문 대통령을 믿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제게 묻는 기자분들이 있지만 저는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지금은 모두 협력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뒤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도 "한미 간 합의와 남북 간 대화에서 직접 회담으로 진전된 회담"이라고 호평한 뒤 "서훈(국정원장)·김영철(통일전선부장)·포퓰이오(미 국무장관) 라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6일 오전 10시께 문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 결과는 발표하는 데 대해 "(남북 정상 간) 회담 시간이 미국 밤이어서 남북정상이 오늘 논의한 결과를 한미 간 조율하고 그 결과를 다시 남북 간 발표 수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양시의원선거 박말레 후보 개소식 성료

"시민 참여·소통으로 현실정치 문제 해결할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박말레 광양시의원 후보가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말레 후보자 개소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최근 소속 정당의 지지율을 실감케 했다.

박후보는 "퇴직 후 공직에 있을 때보다 시민들의 아픔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정치문화가 시민들 속으로 더 깊고 솔직하게 다가가야 함을 느꼈다"며 "지역에 많은 선배 정치인들을 존경하지만 가끔 권력을 앞세운 지역 정치인들과 소지역주의에 빠진 일부 오피노인 리버들이 불합리한 정책을 추진한 사례도 많았다"며 현실 정치에 대해 뼈있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모든 문제는 시민이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뉴스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 5

광산구